兩者 相通되어 麗代有紋方塼의 代表가 될만하다。

이 有紋方塼의 表面에는「上」字 表示를 하였으니 이는 敷設할때 전돌의 位置를 明示한 것으로 縱橫相連하여 바닥 全面을 깔았다。그리고 이에 添記해야 할것이 있으니 곧 扶餘 窺岩面 外里寺址出土 方塼③은 四隅角에 蓮瓣花紋(四等分花)이 있고 慶州 臨海殿址 出土 方塼④은 四隅角에 寶相華唐草紋(四等分花)이 있어 濟羅의 有紋方塼은 相隣結合하여 完全한 十字型 蓮花紋을 또는 十字型 寶相華紋을 形成하는 匠意를 配慮한데 對하여 高麗方塼에 있어서는 四周 緣郭線 및 唐草紋으로 두르기만한 것이 特色인가한다。

註

① 一九五八年十二月號「思潮」誌拙稿「寺跡踏査報告」

② 白性郁博士頌壽記念佛敎學論文集 黃壽永氏論文「高麗興王寺址의 調査」

③ 朝鮮古蹟研究會刊 昭和十一年度古蹟調査報告六八面——七一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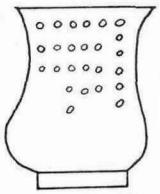
④ 關野貞著「朝鮮の建築と藝術」一〇二面「塼造」

李朝初期의 文字刻白磁器와 三尊佛龕

黃 壽 永

(一)

一九五八年 六月에 日本 鎌倉市 近代美術館에서는「珍奇陶磁展」이 開催되었었다。出品 一六六點中 韓國것은 一九點이 었는데 그 中에서 筆者가 가장 注目한 것은 李朝初期로 推定된 白磁椀이었다。크기는 一五·二㎝×一七·五㎝의 小品이며 下底에는 얕은 굽이 달리고 胴部는 불로면서 넓은 口緣을 向하여 차차 좁아들었다。胎土는 精白하고 形態는 端正하며 釉澤은 牙黃色인 바 그 表面에는 鐵砂로서 大字의 한글이 陰刻되어 六行으로 縱書되어 있었다。說明文에「側面에 刻付된 朝鮮文字가 무엇을 뜻하는지 解讀할 수 없으나 李朝世宗二十八年(一四四六) 天上의 愚民을 불상히여겨 諺文을 制定하였다고한다。이 年代를 降下하기 그다지 멀지않은 時代에 新制의 文字가 珍奇하여 刻付한 것인지 또는 따로 特別한 意味가 있는 것인지 興味가 깊다」하였고 傳來에 對하여서는「箱子 뚜껑裏面에 高麗白水指라 있고 延寶三年(一六七五) 對馬太守로부터 寄贈된 것이라고 記錄되어있다」고 하였다。現所藏者는 謙倉市의 佐藤千壽氏라 하였는데 다음에 記錄하여 敎示를 얻고자하는 바이다。



(二)

日本 天理大學附屬參考館에는 日帝時(一九三〇年頃) 서울 文明堂商店에서 土佐敏一氏가 購入하였다는 木造佛龕 一座가 所藏되고 있다고 한다。形態는 順天 松廣寺의 三尊佛龕(國寶二一七號)과 同一하다는 바 外部는 黑漆되었고 龕內에는 主尊 左右에 菩薩 各 一軀가 安置되어있어 年代는 朝鮮初期로 推定된다고 하였다。그런데 佛體內에 金剛經의 印本이 있어 (現在 十四枚) 한글이 보이는 것은 다음과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筆者는 現品을 實見하지는 못하였는데 앞으로 所藏者에 의하여 이 佛龕과 藏置物이 發表되기를 바라는바이다。(註)

ᄀᆞᆮᄒᆞ ᄂᆡ ᄆᆞᅀᆞ매 ᄅᆞᆷ
ᄃᆞᆯᄒᆞ 이 ᄠᅳᆮ ᄃᆞᆯ
ᄆᆞᆫᄉᆞᆷ ᄆᆞᆫᄉᆞᆷ
ᄒᆞ 야 ᄒᆞ 야

降 伏

(註) 이資料는 故關野貞博士의 韓國關係調査카ㅡ드中에서 筆寫한 것으로 그閱覽을 承認하여준 東大關野克敎授에게 感謝를 表하는바이다。

月城郡「부처재」의 石佛坐像

鄭 永 鎬

月城郡 陽北面 虎岩里「도롱골」(道通谷)의「부처재」(註)에 石佛一軀가 遺存하여 지난 一月 同人 鄭明鎬氏와 함께 調査하였다。祇林寺에서